

-반올림 기자회견-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 : 2016. 1. 13.(수) 오전 11:00
장소 : 반올림 농성장 앞(강남역 8번출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반올림 집행위원장)

1. 여는 발언 : 황상기 (故황유미 님의 아버지, 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교섭 경과 및 사과·보상의 문제 :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3. 직업병 피해당사자 및 유족 발언
 - 손성배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손경주 님의 아들)
 - 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 한혜경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4. 연대발언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집 순서>

1. 교섭 상황 경과
2.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의 문제점
3.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의 문제점
 - *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 * 첨부자료2. 조정권고안과 삼성의 사과·보상 비교
 - * 첨부자료3. 박민숙 님(삼성반도체 유방암 피해자)의 편지글



1. 교섭 상황 경과

- 2012. 11. 삼성의 대화 제안.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 2013. 1.~ 2013. 12. 실무협상. 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정함.
- 2013. 12. 본 협상 시작.
- 2014. 5.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공개 사과.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겠다.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
- 2014. 8. 반올림 교섭단 내 일부 피해가족 분열¹⁾. 가대위 발족.
- 2014. 9. 가대위·삼성, 조정위원회 도입 주장 / 반올림 반대
- 2014. 12. 반올림, 조정절차 수용
- 2015. 7. 조정권고안 발표
- 2015. 8. 삼성·가대위, “조정 보류” 요청
- 2015. 9. 삼성, 자체 보상절차 강행. 가대위 찬성.
- 2015. 9. 반올림과 55명의 피해가족 긴급 기자회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 2015. 10. 7. 삼성, 조정회의에서 계속 “보류” 요청. / 반올림,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시작
- 2015. 11. 25. SK하이닉스, 직업병 대책 발표(외부 독립기구인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및 보상제도 제안을 회사가 수용).
- 2015. 12. 11. 조정위원회 공문 “다른 의제들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 2015. 12. 17. ~ 12. 30.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1~7차 실무협의
- 2016. 1. 12. ‘재발방지대책’ 합의

1) (분열의 원인)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의 교섭이 이어지는 동안, 삼성은 “교섭단에 속한 8명의 피해가족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재발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을 고집했고,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사과·재발방지대책에 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반올림 교섭단 내 일부 피해가족들이 삼성의 주장대로 하자고 입장을 바꾸었고, 결국 그들이 “반올림과 따로 교섭하겠다”며 ‘가족대책위’를 꾸린 것이다.

2.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의 문제점

▶ 삼성의 사과 내용

삼성전자는 2015. 9.부터 시행된 자체 보상절차를 통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상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서한 중 ‘사과’ 부분>

저희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힘입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병에 걸려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또한 이런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문제점

-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스스로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그런데 삼성의 사과에는 삼성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반올림은 2015. 1.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삼성이 “부실한 안전관리”, “업무 환경 관련 자료의 은폐·왜곡 등 산재인정 방해” “직업병 문제제기에 대한 인권침해, 형사 고소”등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각각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제시하였다.

- 위 내용은 2014년 5월 권오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사과문과 거의 동일하다. 그 이후에 수차례의 교섭을 거쳤고 조정권고안 까지 나왔지만, 삼성은 결국 자신들이 처음에 임의로 정한 사과 내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사과’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과의 내용과 방식은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조정권고안(2015. 7. 23.) 중 ‘사과’ 부분>

제13조(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주)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면서 교섭 당사자 모두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으로 천명하는 취지의 노동건강인권 선언하기로 한다.

제14조(사과의 내용)

삼성전자(주)는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반도체 및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정비 및 수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백혈병 등 질환이 발병한 것과 관련한 문제가 근로자 측에서 일찍이 제기되었음에도 과거 위 반도체 등 사업장에 내재한 건강유해인자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 진지한 배려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나머지 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은 점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15조(사과의 방식)

- ① 삼성전자(주)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제14조에 정한 사과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낭독한다.
- ② 삼성전자(주)는 향후 공익법인에서 보상대상자로서 적격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의 형식으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3.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의 문제점

▶ 삼성의 보상 내용

삼성은 2015. 7.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조정 보류”를 요청하더니, 2015. 9. 14.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삼성이 직접 구성한 보상위원회가 보상기준 마련, 보상대상 심사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삼성은 2015. 9. 16. “삼성전자·협력사 퇴직자 보상을 실시합니다”라고 공지하였고 (SAMSUNG TOMORROW 블로그), 별도 개설한 <삼성전자·협력사 퇴직자 보상 접수창구> 사이트(healthytomorrow.co.kr)를 통해 보상신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 하여 보상신청을 권유하기도 했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사이트 참조.)

▶ 문제점

- 삼성이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 보류”를 요청하고 자체적인 보상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교섭(조정) 약속 위반이다.

설령 삼성의 주장대로 이 보상이 조정권고안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삼성이 교섭

(조정)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정권고안에는 다음과 같은 ‘향후 절차’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정권고안(2015. 7. 23.) 중, ‘향후절차’ 부분>

제17조(향후절차)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조정권고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고 이에 관하여 조정당사자 사이에 상호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절충에 이르기 위한 후속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삼성은 보상신청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당장의 생계비·치료비가 절실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실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삼성의 보상절차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에 내몰려 보상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피해자는 고심 끝에 보상신청을 하며 반올림 활동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5. 12. 어느 직업병 피해당사자가 반올림 활동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구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무엇인지...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네요. 알다시피 아프고 돈이 없어 수급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늘 부족한 엄마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 움직일수 있을때 아이한테 좀더 잘해주고 싶어서 보상위에 신청했어요. 저만 이렇게 신청해서 죄송해요. 신청했다고 말을 해야할거 갔아...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최근까지도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다.”고 자랑하듯이 발표하며, 마치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다른 진실 은폐이고 왜곡이다.

- 보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은폐되어 있다. 실제 얼마나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중 몇 명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가, 오로지 삼성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존하여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신청 관련서류로서 일종의 ‘비밀유지각서’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문서에는 “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보상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보상신청자는 보상 관련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약관 제12조 9항 7호).

- 보상의 방식과 내용 전반이 조정권고안의 취지·내용에 반한다. 삼성은 보상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도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요컨대 조정권고안은 외부 독립기구(공익법인)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보상절차를 제안하였지만, 삼성의 보상절차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한시적이다. 보상대상에 있어서도 조정권고안과 달리 질병의 종류, 업무 내용, 근무시기 및 발병시기 등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 조정권고안과 삼성 보상절차의 구체적인 차이는 <첨부자료2.> 참조

-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도 매우 부당하다.**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삼성 측 사람 1-2명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물어도, “내부 기준에 따른 것” 혹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할 뿐이다.

피해자가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기 위하여는 삼성이 제시하는 문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문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도, 그 문서의 내용을 촬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받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문서에 싸인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보상액도 매우 낮다.** 삼성이 공표한 기준에 따르면 백혈병·유방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있는데, 해당 유족들에게 제시된 액수가 2억원대이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 3군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속하는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대의 금액이 제시되기도 했다.

▶ 구체적인 사례들

- **피해자 A의 사례 :** A는 백혈병 피해자의 유족이다. 망인이 퇴직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발병하여, 삼성이 정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A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A가 항의하자, 삼성은 “우리는 조정권고안 대로 하는 것이다.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A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A는 보상대상자가 된다. 권고안은 백혈병을 포함한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년 내에 발병’하면 보상대상이 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삼성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삼성은 A에게 “(보상대상은 아니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수개월 간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고 하기도 했다.

- **피해자 B의 사례 :** B는 유방암 피해당사자이다. 삼성이 공표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유방암은 1군 보상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삼성은 B의 유방암은 초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를 3군 대상자로 분류한 후, 3,000만원대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B가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자, 삼성은 “다시 심사해도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삼성은 B에게도 “월 100만원씩 수개월간 자문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 **피해자 C의 사례** : C는 재생불량성 빈혈 피해자의 유족이다. 망인이 1996년 이전에 퇴사하여, 삼성이 정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C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조정권고안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으므로, 권고안에 따르면 C는 보상대상이 된다)

C가 1996년 이전 퇴직자를 배제한 이유를 묻자, 삼성 측은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채 “일단 신청해 보라”고 했다.

- **피해자 D의 사례** : D는 다발성경화증 피해 당사자이다. 삼성이 공표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D는 3군 대상자이고 3군 대상자도 요양비는 “기존 지출액+향후 예상지출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D는 그 내용을 믿고 보상신청을 하였지만, 삼성은 D에게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며, 치료비로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했다. D가 기존 치료비라도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려달라고 해도, 삼성은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는 말만 하였다.

- **피해자 E의 사례** : E는 백혈병 피해 당사자이다. 보상신청을 하자 절차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제시금액도 너무 적어 수령을 보류하였더니, 삼성 측이 집요하게 설득을 해왔다.

E가 수령의사를 밝히자 삼성은 합의서를 쓰라고 했다. E가 합의서에 “산재보상과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자, 삼성 측은 (별도인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문구를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E가 할 수 없이 서명을 한 뒤 합의서 사본을 요구하였지만, 삼성 측은 그마저도 거부하였다.

- **피해자 F의 사례** : F는 뇌종양 피해자의 유족이다. 망인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컸다. 망인이 투병중일 때는 회사에서도 잘 도와줄 것처럼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부터 회사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F는 회사로부터 “반올림을 만나면 잘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입금해 버리는 일도 겪었다.

보상절차가 개시된 후, 삼성 측이 먼저 F에게 연락하여 보상신청을 권유했다. F가 관련 서류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여 삼성 측이 보상신청 관련 서류를 직접 가져왔는데, 그 안에 일종의 비밀유지 각서가 있었다. F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합의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하고 앞으로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문>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여 시작된 논의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재발방지대책」 합의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외부 독립기구의 장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관리 실태’와 ‘회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삼성의 이행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결과, 평가의 내용들은 모두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는 정보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이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9년의 반올림 투쟁과 지난 3년의 교섭, 무엇보다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이루었을 뿐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섭(조정)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모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 ‘보상’ 논의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삼성이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적으로 강행한 사과와 보상을 앞세우며, 관련 논의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어제 재발방지대책 합의 직후 발표한 글에서 “조정권고안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예방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거짓이고 기만이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는 어떠한가. 삼성은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상 신청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4년 5월 권오현 대표가 발표한 공개 사과문과 다를 게 없다. 그저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는 말 뿐이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이를 전면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의 사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은 또 어떠한가. 삼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직접 보상 대상을 심사하고 보상 내용까지 정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했다. 조정권고안은 독립된 외부기구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보상을 권고했지만,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한시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에 있어서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달리 질병의 종류, 발병 시기, 업무 내용 등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배제했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은 보상신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왔다. 보상신청자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 “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허위로 알리기도 했고, 모든 보상대상자들에게 치료비는 전부 지급할 것처럼 공지해 놓고 그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표한 보상기준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다른 명목의 금전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보상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온갖 꼼수와 협잡을 벌여 왔던 것이다.

요컨대 지금 삼성이 벌이고 있는 ‘사과’와 ‘보상’은 교섭 주체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반올림은, 삼성이 ‘사과’와 ‘보상’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2명이다. 사망자는 지난 달 사망한 이지혜 님을 포함하여 총 76명이다. 반올림에 알려진 숫자일 뿐이니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문제는 지금 삼성이 고수하는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삼성은 이제라도 반올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 매우 단순하고 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반올림에 누가 먼저 대화제안을 했던가.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정절차 도입을 강행했던가.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14/5/14),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대화하겠다”(14/5/30), “조정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자”(14/10/21)며 거듭 약속하고 요구했던 이는 또 누구인가. 모두 삼성이다. 그 약속들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언한 바를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서야 되겠는가. 그 기업을 위해 일하다 희생된 피해자들이 가졌던 신뢰를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는가.

반올림은 ‘사과’, ‘보상’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올바른 변화가 있을 때 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 앞에서의 노숙농성도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 지난 9년여 동안의 활동과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 고되고 더딘 싸움이었지만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다. 매 순간마다 진심어린 응원과 연대의 마음들도 있었다. 그러한 성과와 연대에 힘입어, 이번에는 말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1.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자료 2.)

<‘사과’,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삼성전자 비교>

	조정권고안	삼성전자 ¹⁾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황유미 님(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사망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화 - (반올림 파악) 2015. 12. 까지 총 222명의 직업병 피해제보가 있었고, 그 중 76명은 사망. 8명은 직업병 인정 받음 - 2012. 11. 삼성이 반올림 측에 대화 제안. - 약 1년간의 실무협상 끝에 교섭 의제(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를 정하고, 2013. 12. 부터 본교섭 시작. - 2014. 5. 권오현 대표의 공개사과(“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한다.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 - 2014. 9. 삼성·가대위가 조정위원회 도입 강행. / 반올림은 ‘직접 협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다, 2014. 12. 조정 절차 수용 - 2015. 7.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발표 직후 삼성과 가대위는 조정 ‘보류’ 요청 - 2015. 9. 삼성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사과와 보상을 강행. 	
보상 및 예방대책 사업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삼성전자와 구성·운영 면에서 독립된 사회적 기구(공익법인)</u>를 설립하여, 보상과 예방대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다. - 기구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1000억원을 삼성전자가 기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원을 ‘사내’ 기금으로 조성하여, 보상과 예방 및 연구 활동에 쓰겠다. - 보상에 대한 기준마련·심사·집행은 <u>삼성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보상위원회가 맡는다.</u> <p style="text-align: right;">* ‘2015. 8. 3. 삼성전자 보도자료’ 참조</p>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하라</u> -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고통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 피해가족에게 사과하라 - <u>기자회견 방식</u>으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낭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상합의를 한 피해자에게 개별 발송 중</u> - (내용)“이런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정권고안	삼성전자 ¹⁾
보상	대상 질병	(1·2군 질환) -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 - 뇌종양, 유방암 - <u>유산·불임</u> (3군 질환) - 난소암, 종격동암, 피부T세포림프종, 흑색종, 눈의 종양, 두경부 종양 -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전신경화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베게너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프스, 쇼그렌증후군, 파킨스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모야모야병, 스틸병,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 2세질환(선천성 기형, 소아암)	(1·2군 질환) -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 - 뇌종양, 유방암 (3군 질환) - 난소암, 종격동암, 피부T세포림프종, 흑색종, 눈의 종양, 두경부 종양 -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전신경화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베게너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프스, 쇼그렌증후군, 파킨스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모야모야병, 스틸병,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 2세질환(선천성 기형, 소아암)
	업무 이력	<u>소속 불문(즉 협력업체 소속 포함)</u> - 2011. 1. 1. 이전 입사자. - 1년 이상, 반도체·LCD 생산공정, 생산설비 관련 업무 담당	- 2011. 1. 1. 이전 입사자. 단 1996년 이전 퇴사자는 배제. - <u>재직중인자 배제</u> - 1년 이상, 반도체·LCD 생산공정, 생산설비 관련 업무 담당 (협력업체) -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무를, '상주'협력사 소속으로 삼성반도체·LCD 사업장 내에서 '상시'수행
	발병 시기	- 재직중 또는 퇴직후 10년 이내 발병. - 단, ①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뇌종양은 퇴직 후 14년 ②유산·불임은 퇴직 후 1년 ③희귀질환은 퇴직 후	- 재직중 또는 퇴직후 10년 이내 발병 - 단, 희귀질환은 퇴직 후 5년 이내 발병

		조정권고안	삼성전자 ¹⁾
		5년 이내 발병 - 2세질환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 1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 성년 이전에 발병	- 2세질환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 1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 성년 이전에 발병
	보상 내용	(1·2군) - 치료비 +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 <u>공익법인이 정하는</u> 위로금 - 유족보상(사망시)은 1군은 평균임금 1000일분, 2군은 평균임금 700일분 (3군) - 치료비 - 유족보상(사망시)은 평균임금 300일분	(1·2군) - 치료비 +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 <u>회사가 정하는</u> 위로금 - 유족보상(사망시)은 1군은 평균임금 1000일분, 2군은 평균임금 700일분 (3군) - 치료비 - 유족보상(사망시)은 평균임금 350일분
	보상 절차	- <u>공익법인이 심의·산정·지급</u>	- <u>회사가 직접 지명·구성한 보상위원회가 심의·확정 하면, 회사가 지급</u> - <u>보상신청 기한은 2015. 12. 31. 까지</u>
	향후 조정	-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u>조정권고안 내용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공익법인이 정한다.</u>	(언급없음)

1) 2015. 9. 18. 삼성전자 블로그(samsungtomorrow.com)의 ‘알려드립니다, 이슈와 팩트’에 올라온 관련 공지 및 삼성전자가 보상 신청 접수를 위해 개설한 별도 홈페이지(healthytomorrow.co.kr)의 내용

()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아온지 2주가 되어가는군요.

저는 반도체 키네에서 7년동안 근무한 박민숙입니다.

같이 일했던 숙영이, 유미, 그들은 고인이 되었고 저는 양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벌써 4년이 지나갑니다.

벌 오래 앓을 정거점진에서도 재발 아무런 이상없이 통과되길 바라면서요.

얼마전 두가지 슬픈일을 겪었습니다. 종간씨를 통해 알게된

상성동생이 유방암 발병 2년만에 비뇨 전이가 되었다는 얘기에

울먹이는 동생을 위로해 준다고 덤덤한 척은 했지만 방새 뒤척이며

장독 못 이뤘습니다. 또한명은 키네 동료로 친구였던 여럿은

갑상선으로 평생약에 의존하던 애가 갑작에 연락이와 유방암 3기가 되었다는

기가 막힌 얘길 하는 겁니다. 본인은 양도 아니고 갑상선이라며 안심했던

친구였는데 이게 왜 막입니까?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현상이 끊이지

않고 불행으로 다가오니 막입니다. 지난번 농성장에 가서도

피해자의 고통이 한번 아픈지 치유해서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평생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죄를 이렇게 짓을까요? 우리의 고통은 왜 우리만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먼저 간 이세상에 없는 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승귀고 살아있는 자들도 적인이 되는 기분으로 지냅니다.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찬 바닥과 찬 공기를

몸통으로 맞으며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출 것을
기^대하며 기억없는 투쟁을 합니다.

비로 이곳이야말로 마땅히 지킴이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온전한 위로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아픈 고통에 있는 여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지금의
고통의 터널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권고안에 드는데 보상위의 가중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환시적이고 대상을 제각각 하는 사람과 보상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저처럼 배제되는 이 없이 모두가 보상기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남성은 지금도 다 배제없이 힘든 것처럼 또장려지만
열어보면 속임수와 꿈수입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속고 있구요
저들의 탐욕이 자신들이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것을 모르는
정신 피해자. 유가족 등을 면서하고 배신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마음의 근심으로 두려워하기 보다 걸음수만 깨끗한 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강남여흥번 출구 농성장은 공의와 진실을 위해
매일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지 않을게요.. 새해 2016년도에는 정말 성의와
진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업힌 실태들을 한가닥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 동참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